

## 답창(Foot abscesses)

흔히 발굽 화농증(subsolar abscess, nail prick)이라고도 명명하고 급성 파행(acute lameness)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발굽 안의 화농은 주로 땅 위로 돌출되어 있는 단단한 자갈을 망아지가 달려가면서 밟았을 경우 발생하기도 하고,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못 혹은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바닥을 통해서 발굽의 지각부에 침입하여 그 속에서 세균이 증식함으로써 발생한다. 상처부위가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clostridium spp.과 같은 혐기성 세균이 증식되기도 하고 때때로 제3지골(제골, coffin bone) 골절이 동반되기도 한다.

### ☞ 증상

급성의 심한 파행을 나타내고 그와 더불어 손상을 입은 다리 쪽에 체중을 싣지 않으려고 보행시에 머리를 반대쪽으로 향한다. 감염 초기에는 손상된 발굽과 제관(coronet)에 열감(heat)이 증가하고 24-48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발목(pastern)과 구절(fetlock joint))부위까지 부종이 나타나기도 한다.

### ☞ 진단 및 치료

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이 제벽(hoof wall) 내측 전범위에 확장되어 제관으로 삼출액이 나오는 동(sinus)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발굽 검사기를 이용하면 감염 부위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발바닥을 통해서 통증이 가장 심한 부위를 찾아내야 하고 그 부위부터 굽칼로 도려서 제거하기 시작하여 감염된 부위를 배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. 배액 시킨 후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청결한 양동이 혹은 고무로 된 먹이통에 적절한 살균 소독제를 첨가하여 발굽 전체를

10분 정도 흠뻑 적신 다음 animalintex poultice를 감아 주면 된다. 이러한 처치를 감염된 부위의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3-5일 동안 매일 반복해주어야 한다.



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항생제 투여는 불필요하며 감염이 그 부위에 국한되기 때문에 항생제 투여는 비효과적일 것이다. 그러나 좀더 전신적인 감염인 경우에는 항생제로서 페니실린을 선택하여 4-5일 동안 투여하는 것도 추천된다. 그리고 파상풍 예방이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파상풍 항독소(tetanus antitoxin) 3000IU를 피하로 주사하고, 뒤이어서 파상풍 유독소를 근육 주사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.